

다이쇼인 절: 기에즈노 레이카도

미센 산 정상에 있는 기에즈노 레이카도(꺼지지 않는 레이카도)는 1,200 년이 넘도록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알려진 신성한 불이 있는 사당입니다. 다이쇼인 절을 창건한 구카이(774~835)가 806 년에 미센 산에서 호마법(불을 피우며 기도를 올리는 의식)을 수행했을 때 이 불을 붙였다고 전해집니다. 진언 밀교에서 중요한 의식인 호마법은 마음을 정화하고 부정적인 사고와 나쁜 기운을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기에즈노 레이카도는 오랜 세월을 걸쳐 자연재해에 의해 수 차례 파괴된 역사가 있습니다. 가장 최근인 2005 년에는 건물이 전소되면서 이듬해에 재건되었습니다. 당시 발생한 화재로 검게 탄 기둥이 지금의 사당 한켠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 구카이의 신성한 불씨는 방 안쪽에 자리한 불상 옆 긴 촛대 위에서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. 한편, 중앙에 있는 이로리 화로에서 또 하나의 신성한 불씨가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. 이로리 화로의 불은 큰 다도용 솥에 성수를 넣어 끓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. 이 물은 만병통치약으로 유명하며 비치된 종이컵에 따라 마실 수 있습니다.